

“검사내전”은 따뜻한 사람 이야기

영화나 TV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 검찰은 정권과 결탁하거나 부패한 집단으로 그려지기 일쑤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어딘가 다를 것 같은 사람들. 대중이 검사에 대해 갖는 편견 아닌 편견이다.

16일 방송을 시작한 JTBC 새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은 검사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와 거리를 둔다. 현직검사 김웅이 쓴 동명의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검사들도 똑같은 월급쟁이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역설한다.

남해안에 있는 가상의 소도시 진영에서 생활밀착형 검사 이선웅을 연기하는 이선균(44)은 16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공감 가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선웅이라는 극 중 이름(이선균+김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선웅은 김웅을 모델로 한 캐릭터다. 이선균은 “(김웅 검사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 강연과 TV 인터뷰를 보며 참고했다”면서

이선균 주연 JTBC 새 월화드라마

김웅 현직 검사가 쓴 동명 에세이

도 “우리 드라마는 여러 캐릭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김웅 검사를 100% 따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11년 차 엘리트 검사 차명주 역을 맡은 정려원(38)은 2년 전 방송한 KBS 2TV ‘마녀의 법정’에 이어 또 한 번 검사 연기를 하게 됐다.

정려원은 “부담이 돼서 대신 검사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대본이 너무 재밌었다”면서 “전작 캐릭터가 승소하기 위해선 편법도 쓰는 안티 히어로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차갑고 무뎠고 감정을 표현을 절제하는 캐릭터여서 대비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우들은 검사가 등장하는 여타의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회사원 같은 검사’ 느낌을 강조했다.

김광규(52)는 “영화 ‘검사외전’과 완전히 다르다. 권력다툼은 크게 찾아볼 수 없고, 회사원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재(49) 또한 “검찰 이야기는 딱딱하다고 느껴졌는데 ‘(검사내전)’은 실제 (검사의) 리얼한 모습을 그려낸 드라마라서 선입견을 깬다”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이태곤 PD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고 한쪽만 해안 도시 검사들의 얘기라서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드라마라는 게 사회 분위기,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어서 드라마 후반부가 조금 수정이 됐다”면서도 “어쩌면 약간 무능한, 소박한 검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와는 거리가 먼 드라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월·화요일 밤 9시 30분. /연합뉴스



배우 전성우(왼쪽부터), 이상희, 김광규, 이선균, 정려원, 이성재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서울호텔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검사내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우새 vs 슈돌

일요일밤 예능 대결 구도 뚜렷



일요일 밤 9시 SBS TV 간판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와 KBS 2TV 국내 대표 예능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의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졌다.

1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0분부터 10시 53분까지 방송한 ‘미우새’ 시청률은 12.7%-13.8%-14.3%를 기록했다. ‘미우새’보다 20분 늦게 시작한 11시에 끝난 ‘슈돌’은 12.0%-11.6%였다.

‘슈돌’이 ‘1박2일’의 복귀와 함께 밤 9시대로 자리를 옮긴 후 첫 방송이었던 지난주는 ‘미우새’가 13.8%-15.1%-14.8%, ‘슈돌’이 11.7%-10.9%였다.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슈돌’이 ‘미우새’의 시청률을 일부 빼앗아온 셈이다.

‘슈돌’이 편성 변경을 알렸을 때부터 방송가에서는 두 프로그램 모두 스타 가족을 조망하는 예능이라는 점에서 시청자가 일부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주 ‘미우새’가 추 추문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의 예비 신부를 향한 프리프즈 에피소드를 그대로 내보내면서 시청률은 선방했지만, 비난 여론을 피하지 못한 점도 전날 시청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건모와 그의 어머니 이선미 씨는 지난주 방송을 끝으로 사실상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반면, ‘슈돌’은 가수 장윤정-아나운서 도경완 부부의 재합류 등을 발판 삼아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모두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이달의 소녀’, 美 아이튠즈 싱글·앨범 1위...한국결그룹 최초

결그룹 이달의 소녀(LOONA)가 국내 결그룹으로는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 싱글·앨범 차트를 모두 석권했다. 소속사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는 16일 이달의 소녀 리드 싱글 365가 지난 14일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리패키지 앨범 ‘멀티플 멀티플(X X)’이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 결그룹이 미국 아이튠즈 싱글·앨범 두 종류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12인조 결그룹인 이달의 소녀는 지난해 8월 데뷔했다. 대표곡으로 ‘버터플라이’(Butterfly), ‘하이 하이’(Hi High) 등이 있다.

내년 초 새 앨범 해시(#) 발매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미널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1부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생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2019 지구촌 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인문학다큐 위풍당당 전라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2부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빠샤 메카DS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미널 샐러드(재)	20 나쁜사랑(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소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55 생존자들	30 글로벌24 55 생존자들	55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00 역사자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00 VIP
[11]	35 UHD 슈퍼 40 바다 건너 사랑	2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결착 다큐멘터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중계식 국립오페라단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사와 곰(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우리기 천사들
07:30 뽀뽀보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8:30 최고대 호기심 딱지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땡땡땡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가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로마로 가는 길-블루 로망 지중해>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춘서러워도 좋아, 촌티기행 2부
10:30 한국기행	16:40 땡땡땡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가래 치고 기물치 잡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건축탐구 - 집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7일 (음 11월 21일 戊子) ☎ 010-9790-8237

子 36년생 당황하면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못 찾을 것이다. 48년생 과거적인 진보가 있겠다. 60년생 맹목적이거나 무의미하다. 72년생 좀처럼 오기 힘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인바 꼭 잡도록 하라. 84년생 한 순간에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는 동세이다. 96년생 막힘없이 소통되어 자장을 받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4, 29

丑 37년생 기쁨에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이다. 49년생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과욕하지 말라. 73년생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야 해를 뱉 것이다. 85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97년생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행운의 숫자 : 19, 50

寅 38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나니라. 50년생 정도의 차이가 심하여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62년생 요령을 활용하다보면 참신한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다. 74년생 실망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86년생 종년에 곡식을 가득 넣어둔 광 속의 쥐 격이라고 볼 수 있다. 98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9, 25

卯 39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니 명쾌하게 대처하자. 51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라. 63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75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87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9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행운의 숫자 : 76, 42

辰 40년생 기다리고 살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52년생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64년생 외형과 내면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76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88년생 강운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되자. 00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행운의 숫자 : 51, 71

巳 41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53년생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65년생 예견치 못한 점들이 보인다. 77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89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험치 많은 이를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01년생 결집 속에 피어난 자생력이 근간을 이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96

午 30년생 폭 넓은 시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용이하다. 42년생 알뜰한 발상이 윤택한 생활로 이끌게 됨을 명심하라. 54년생 되게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66년생 공감하였다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78년생 이웃과의 관계가 긴요하다. 90년생 아예 아니함만 백 번 못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02

未 31년생 절호의 기회이다. 43년생 차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판단해도 되느니라. 55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되겠다. 67년생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79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91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9, 79

申 32년생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이 무난하다. 44년생 걸음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대동소이하다. 56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이 비취를 것이다. 68년생 당황할 수밖에 없는 형세에 놓이리라. 80년생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세이다. 92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8, 40

酉 33년생 마음을 빼앗긴다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45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한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57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69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다녀야 할 바쁜 날이다. 81년생 문서에 이로운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93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98, 67

戌 34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46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70년생 여태까지 접해 보지 못했던 것이 대두된다. 82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94년생 배려하다보면 얻는 바가 많다. 행운의 숫자 : 45, 06

亥 35년생 마음을 놓는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47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59년생 불만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71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83년생 대동 구멍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95년생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7, 81